

“우리도 예비장애인, 장애 편견 없어야”

4월 20일 장애인의날, 불교계 다양한 사업 진행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추정수는 268만여 명으로 이 중 질병과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가 90.5%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까지도 멀쩡했던 나의 가족이, 내 곁에 있는 친구가, 나 자신이 비장애인이어서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예비장애인’인 셈이다.

하지만 몸이 다소 불편한 이유로 우리는 편견을 갖고 그들을 다른 사람과 구분 지어 또 다른 고통을 준다. 올해로 제33회를 제정하고 있다. 장애바로알리기 교육부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장애는 시작됩니다’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복지관에서는 비장애인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도와, 편견을 버리고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바로알리기 교육부 마라톤대회, 락페스티벌 등 다양하다.

승가원(이사장 태원)은 2010년부터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장애바로알리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담당 사회복지사가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61곳을 방문해 270여 회를 실시했다.

오주현 승가원 사회복지사는 “장애 바로알기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장애·장애인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라고 물어보면 ‘불쌍해요, 도와줘야해요, 무서워요, 이상해요’ 등 부정적인 대답을 듣게 된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되면 자신도 모르게 장애인들을 차별하게 된다”고 말했다. 승가원은 이런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



승가원은 2010년부터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장애바로알리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9일 승가원 사회복지사가 서울 배명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승가원...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 준비
강북장부...연극으로 인식 개선 노력
속초·금강장부...마라톤 개최

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설장애인의 정·유형, 장애 에티켓 등의 내용이 담긴 이튼교육 뿐 아니라, 영상을 통해 승가원 장애아동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보여준다. 또한 휠체어를 타거나 자신의 이름을 점자로 적어보는 활동, 거울을 통해 글씨를 반대로 써보는 시지각협응체험 등을 통해 장애를 직접 해본다.

이 밖에 승가원은 ‘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barosgwon.or.kr)’를 만들고 ‘장애바로알기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다. 기존의 승가원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장애 바로알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다.

승가원은 “올 상반기에 홈페이지가 완성되며 교육소개와 일정, 교육신청을 비롯해 장애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들을 담은 예정”이라며 “장애바로알기 교육을 중심

으로 운영하다 추후 활성화되면 장애 관련 상담코너도 만들 계획이다. 더 나아가 장애에 대한 자료, 법률 기사 등 장애와 관련된 모든 궁극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애인 전문 홈페이지도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화)는 장애·비장애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연극을 배우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청소년들은 ‘마음 담배 타 허물기-내가 꿈꾸는 우리’라는 주말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해 오감을 활용한 연극을 배우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창작해 공연하고 발표한다.

장애틀링이 이것부터 실천해보세요
1. 장애인으로 부르지 않고 그들의 소중한 이름을 불러준다.
2. 휠체어를 밀어주기보다 스스로 이용하도록 기다려준다.
3. 눈은 마음의 창. 대화를 할 땐 상대방의 눈을 본다.
4. 장애는 나이와 관련이 없다. 연령에 맞는 존칭을 사용한다.
5. 언어장애가족과 대화할 때는 경청하고 적당한 속도로 말한다.
6. 종교를 묻는 것이 실례가 되듯 장애를 묻는 것도 실례가 될 수 있다.
7. 글을 모르면 간단한 그림으로 장애가족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8. 유심히 바라보지 말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시선으로 장애가족을 대한다.
9. 장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10. 장애가족도 공부하고 사랑하고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정보제공=승가원)

“직접 빛은 도자기 구경오세요”

성북장부, 화분전시회 4월 22일까지 개최



성북장애인복지관의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자원 봉사자들이 만든 화분과 전시 포스터.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봉사자가 함께 흙으로 빛은 화분을 전시하는 자리가 열린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은 4월 16~22일까지 이마트 하월곡점 지하 1층에서 ‘흙으로 빛은 아름다운 세상-행복을 담은 화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성북장애인복지관 도예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의 작품으로 구성돼 화분과 소품 등 약 30여점의 도예 작품을 전시해 그동안 갖고 있던 솜씨를 선보일 예정이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도예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세밀한 손 기능을 강화하고 표현력을 다양화 하는데 효과가 있다”며 “복지관은 지난 2년 간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2회 도예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또한 도예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의 사회성 함양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마트 하월곡점,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연구소 등에서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작품 외에도 기성 도예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화분 만들기 체험 활동을 진행해 대중에게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현관 스님은 “이번 전시회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성취감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돕는 한편, 대중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도예 작품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또 한 번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2)915-9200 이나은 기자

“우리는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일산노인, 가족연계 프로그램 실시

지역 내 가족과 저소득 독거노인이 결연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족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화)은 4월 6일 복지관내 교육실에서 ‘가족애(愛)탄생’ 사업설명회 및 결연식을 실시했다.

가족애(愛)탄생 프로그램은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가족구성원에 청소년이 포함된 가족이 가족봉사단을 이뤄 지역 내 내가 노인일 때 매일 결연을 통해 정서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결연식에서는 가족봉사단 10가구와 독

거르르신 9명이 참석해 프로그램 일정 및 활동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아, 가족봉사단과 어르신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애(愛)탄생 프로그램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간 전연연색 체험, 꽃박람회 나들이 등 관내 외에서 정기적으로 문화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가족봉사단과 독거노인가족 단위의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역 내 소외계층 노인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하도록 해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지지방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세대 간의 교류를 도모하는 의미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31)919-8677 이나은 기자



‘가족애탄생’ 결연식에 참석한 저소득 어르신과 지역 내 가족구성원

“축구선수가 꿈인 아들 위해 일어나야죠”

4월 치료비 지원 선정환자 이정화 (여·44세·뇌출혈)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4월의 환우로 이정화(44·여·사건)씨를 선정했다. 이 씨는 중학교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의 도움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다 남편을 만나 분식집을 운영했다. 그러다 2012년 1월, 이 씨는 지인의 일을 도와주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재활을 기대하던 이 씨는 뇌출혈까지 발생했고, 매일 100만 원이 넘는 재활 치료비가 발생했다. 치료비는 밀리기 시작했고 600만원이 된 빛은 점점 불어나고 있다.

남편 역시 C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몸을 챙길 겨를이 없다.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은 엄마의 투병이 길어지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 해 권고전학 조치를 받은 상황이다.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해야”

1366 경북센터,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교육 실시

국제결혼으로 인한 인권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 중개 문화를 조성하는 교육이 실시됐다.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센터장 진원)는 4월 11일 김천시 파크호텔에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있는 50여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진원 스님은 환영사에서 “결혼중개업 법규를 이해해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상담실무로 종사자들의 건강한 결혼중개 문화 역할 부여 및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결혼중개업 종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 후 기념사진을 촬영한 경북 23개 시·군에 있는 50여 국제결혼 중개업체 종사자와 진원 스님(앞줄 가운데)

이날 교육은 경북지방경찰청 외사계 이영구 경위의 ‘결혼중개업법 이해 및 국제결혼 피해·단속사례’ 등이 진행됐다.

이나은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과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제기동 02-966-0020	창원 055-243-6333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高音質 무선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신제품!! 고급 앰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경명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